

특별기획

군산시, 하수도 정비사업 추진

익산시의회, 설 맞아 복지시설 방문

익산시의회(의장 소병홍)는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아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찾아 위로하고 사랑을 함께 나누고자 이웃사랑을 실천해 실천하고자 관내 복지시설을 방문했다.

의회는 19일 익산시 월성동 소재 작은 자매의집과 신원동 소재 이리보육원을 차례로 방문하여 쌀과 라면 등 위문품을 전달하고 따뜻한 마음을 보내도록 위로하고 덕담을 나눴다.

소병홍 의장은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 설날을 맞아 가족과 함께 하지 못하는 시설을 찾아 조금이라도 따뜻한 마음을 함께 나누기 위하여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익산=장왕원기자

군산대, 캐치프레이즈 공모

군산대학교가 개교 70주년을 맞이해 군산대학교의 역사와 미래비전을 널리 알리기 위한 개교 70주년 기념 캐치프레이즈'를 공모한다.

공모기간은 19일부터 내달 7일까지며, 응모자격에 제한은 없다.

공모주제는 새만금과 함께 세계로 나아가는 지역 제일의 특성화 대학 완성을 간결하게 표현하고, 70년 전통의 발자취를 돌아보며 구성원의 자부심을 높일 수 있는 문구로 지역사회와의 동반자적 인내의 역할을 표현하거나 미래 100년을 향한 포부와 비전을 담은 내용이면 된다. 기타 문의는 군산대학교 대외협력과(☎663-469-7318)로 하면 된다.

/군산=문정곤기자



해신동 주민센터, 신청사 준공

군산시 해신동 주민센터가 신청사 준공을 마치고 오는 23일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개시한다.

지난 2015년 12월 착공한 주민센터는 연면적 1436㎡에 지상 3층 규모로 중앙로 220(급동)에 위치하고 있다.

청사 1층에는 넓고 쾌적하게 조성된 민원실이 갖춰져 민원인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특히 2·3층에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실과 대회의실 등을 마련해 다양한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해져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문정곤기자

2020년까지 총 2000억원 투입... 빗물 펌프장 등 침수예방사업 올해 말 완료

군산시가 보건환경 개선을 위해 농촌 및 도시지역 하수도, 도심 하수관거 정비, 도시침수 예방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2020년까지 총 2000억원(국비 1400억 등)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시는 전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40억원을 조기 발주한다. 시는 지난 2012년부터 1000억원을 투입해 소룡동과 중동지역에 빗물 펌프장 2개소, 관거 2km를 정비하는 도시 침수예방사업과 새만금유역 하수관거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말 사업을 완료해 집중호우시 신속한 우수배출로 침수피해를 최소화 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는 근대역사지구 환경개선을 위한 원도심지역과 미룡동, 육구를 육서면 하수관거 정비 사업에 착수한다. 특히 도시지역 하수도 정비에 중점

을 두고 사업비 150억원으로 신시·무너·선유도에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신설해 고군산연결도로 개통에 따른 관광객 증가에 대비해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어청도는 실시설계 후 내년부터 하수도 정비공사를 추진한다.

하수시설물은 관광지 이미지에 맞는 디자인과 첨단공법을 도입해 생활하수 적정 처리로 관광지 환경개선과 연안지역 수질을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2018년 중앙동, 흥남동 일원의 급압분구 하수도 정비와 농촌지역 마을하수도 정비에 중점을 두고 사업 필요성, 경제성 타당성 등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 환경부 국비확보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사업이 완료되는 2020년에는 생활하수의 적정처리로 도시와 농촌지역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

/군산=문정곤기자

익산시-위델소재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사용협약 체결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 사업 추진 일환

익산시는 19일 오전 시장실에서 정현을 시장과 선호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제3일비점저감사업 임주업체인 (주)위델소재(대표 신선호)와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사용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주)위델소재는 시에서 운영 중인 산업단지 내 비점오염원 저감 시설을 사용하게 돼 설치의 무를 면제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비점오염원 저감 시설은 강우 초기에 사업장 부지 내에서 빗물과 함께 오염물질이 바로 유입되면 하천오염이 유발됨에 따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따라 부지면적 1만㎡이상이면서 화학제품제조업 외 13개 업종의 폐수배출시설 사업장은 자체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기업에서는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의 초기시설 설치와 운영비용이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는 게 현실이다.

이에 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조성 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업체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시에서 설치·운영중인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사용협약에 대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으며, (주)위

델소재가 최초 수혜자가 됐다.

그동안 다양한 규제와 여러 장애들로 인해 기업유치에 난항을 겪었던 시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더욱 활발한 기업 유치 활동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현을 시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희망체와의 비점오염원 사용협약을 지속 추진하여 입주기업의 편의를 도모하고 이 제도에 대해 알지 못하는 잠재적 입주기업에 대해서도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여 익산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왕원기자

군산시, 소룡동 '야외수영장' 봄·가을 활용 방안 마련

군산시가 소룡동 '야외수영장'을 봄과 가을에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해 시선을 끈다.

군산시야외수영장은 지난해 7월 8일 개장해 8월 25일까지 운영했으며, 가족 단위 물놀이 공간 부족 해소 등 도심 속 새로운 피서지로 각광을 받았다.

시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유아 1만 1973명, 어린이 1만 8609명, 청소년 7055명, 성인 2만 8321명 등 모두 6만 5958명이 야외수영장을 이용했으며, 야외수영장 운영에 따른 부수적인 효과로 총 18억 4000만원의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사업 시행 전 환경관련 문제와 인근 슬레이트 건물이 흉물로 남아있어 사업부지 위치로 부적절하다는 여론과 1만 617㎡의 부지에 총 51억 7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만든 야외수영장을 여름 한철만 사용하는 것은 예산낭비의 지적이 많았다.

이에 군산시는 여름철 이외의 계절에도 야외수영장 부지와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봄·가을 야외수영장 활용계획'을 내놨다. 우선 야외수영장에 4억여 원의 예산

을 들여 어린이휴게장과 농구장 에어바운스 트램폴린, 전동차 체험장 등을 시설할 계획이다.

유아와 초등학생들이 주로 이용할 수 있는 이들 시설은 오는 2월부터 4월까지 설치해 여름에는 수영장으로 사용하고 봄과 가을에도 수영장 부지를 놀리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야외수영장에 봄과 가을철 이용시설이 마련되면 야외학습을 실시하고 있는 어린이집 등의 야외활동과 체험공간 부족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군산=문정곤기자

특전사 예하 제7공수특전여단 일반인 대상 동계 특전캠프 개최

특전사 예하 제7공수특전여단은 17일부터 20일까지 3박 4일간 초등학생이상 일반인을 대상으로 2017년 동계 특전캠프를 개최했다.

매년 2회씩 동·하계로 나누어 실시되는 특전캠프는 일반인들의 나라사랑 마음 및 안보의식을 고취하고, 자기극복과 성찰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지난 1900년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0000명이 수료하였다.

이번 특전캠프는 전국에서 중·고등학생, 대학생, 일반인 등 남자 20명, 여자 48명 총 68명이 입학하였다. 참가자들은 특전사 장병들이 실시하는 강도 높은 훈련을 체험하며 '안타깝게도 하수도 분야 행정에 대한 신뢰도 향상과 쾌적한 관광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공처리장과 폐수처리장 등 기존시설에 대한 노후시설 개량과 첨단 운영기술 습득을 통해 방류수질 강화에 따른 수질개선, 악취 저감과 운영관리 성과평가를 통한 업무개선 및 민원의 신속한 처리체계 구축으로 시민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칠 계획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동북아의 중심 새만금의 수질개선과 생태복원, 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 하수관거 정비 및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하수도 분야 행정에 대한 신뢰도 향상과 쾌적한 관광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효과를 더욱 증대시키기도 했다. 특전캠프 프로그램은 기본적인 제식훈련 및 유격체조 등을 비롯하여, 인간이 가장 공포심을 느끼는 지상 11m 높이의 모험탑 강하와 헬기 모형 레플 낙하산 경주 서바이벌 사격, 야간숙영 및 취사 등의 훈련과 인보현장 견학, 캠프 파티어, 장기자랑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이번 캠프 프로그램은 힘들고 배고픈 극한의 상황을 경험할 수 있도록 별도의 간식 없이 식사량을 철저히 통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캠프 입소자 중 대다수인 40여명의 학생들이 군 간부인 장교·부사관이 되겠다는 강한 목표와 의지를 보임으로써,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10·20대의 학생들 가운데서도 높은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도 하였다.

이번 특전캠프는 현역장병들이 교관과 조교의 역할을 넘어 실제 참가자들과 같은 위치에서 훈련하고, 병영생활도 함께하므로써 교육

/익산=장왕원 기자



군산시, '방과후학교 대상' 최우수상 수상

지역사회파트너 부문

군산시가 지난 18일 교육부 주최 '방과후학교 대상' 지역사회파트너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명실공히 전국 제일의 교육도시임을 인정받았다.

'방과후학교 대상'은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교육개발원, 삼성꿈장학재단, 중앙일보가 공동주관해 방과후학교의 우수사례를 발굴 공유하고 지역 사회 기관의 관심과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방과후학교의 양적 성장과 질적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하는 사업이다.

군산시는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07년 인제양성과를 신설 '청와인재 교육도시'로 시정을 운영해 왔다. 또한 군산교육지원청, 학교 학부모와 긴밀히 및 교육설명회를 진행

하는 한편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 등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예산을 지원해 왔다.

그 결과 군산지역 학생들의 학력이 꾸준히 향상됐을 뿐만 아니라 교육주체와 객체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사업의 주요성과로는 ▲다양한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 지원으로 우수인재 양성 및 지역명문학교 육성 ▲어린이 행복도시 조성으로 어린이에 대한 가치존중과 지역사회의 행복바이러스 유포 등이다.

한편 군산시는 이번 최우수상 수상으로 받은 시상금 300만원을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에 장학금으로 기탁했다.

/군산=문정곤기자

어린이와 시민 모두 행복한 도시 군산!
 풍부한 문화 콘텐츠 근대 역사 문화도시!
 동북아 산업과 관광의 허브 군산·새만금!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다!!

꿈향경을 갖춘
 동북아경제수심 명품도시 군산

DreamHub GUNSAN 군산시 GUNSAN CITY